

미래 지향적 특수교육 연구와 교육실제와의 관계*

- 체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기(申鉉琦)**

논문 요약

특수교육 연구가 개별적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체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기초적인 제안수준이기는 하지만 체제적 접근은 종래의 연구방법보다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특수교육 연구는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별성을 추구하고 있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함은 물론 연구 활동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 지향적 연구 및 체제 지향적 평가의 구상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특수교육 연구토대 자체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 연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영역이 팀을 이루어 시도하는 체제 지향적 연구에 대한 개념화와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과정을 통하여 체계적·과학적, 그리고 효과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어 : 체제적 관점, 연구지식, 실제지식

I. 문제의 제기

교육연구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한 부류는 오래전부터 당연시해온 과제의 세

* 본 연구는 200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부적인 작업에 열중하며, 다른 부류는 그 작업이 당연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가운데 어떤 부류가 더 바람직한지는 간단히 파악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발전하는 학문일수록 그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간단없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학의 경우 기존의 학문적인 틀 속에서 안주하는 부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가 1990년 이후 들어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특수교육학이 이제까지 묻어두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수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회의론의 대두이다. 그래서 비롯된 것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롯된 일반교육 주도의 통합교육이며, 완전통합교육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정적 갈등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통합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특수교육진흥법을 앞세워 부분적인 통합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재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통합교육의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증 불가능한 우연학습의 결과이거나 인간발달 과정에서의 자연적 성숙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일반학교는 일반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봉착하다. 즉, 사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선수학습 결과 또는 피로도도 인한 학교수업시간 집중력 감소, 통제적 수업방식에서 자율적 수업방식 또는 학급운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교사의 학급 통제력 약화,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갈등문제, 협동과 화합을 도모하는 실제적 지식교육보다는 완전경쟁을 지향하는 분석적 지식 위주의 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심정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에서 일반학교의 누구도 장애학생의 입학에 결코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학교의 문제에 대한 해결 즉 일반학교의 재구조화 없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수교육 관점이라는 제한적 시각이 아닌 일반교육이라는 더 큰 체제적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바라볼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 연구를 미래지향적 관점이라는 소위 체제적 관점에서 조망해봄으로써 특수교육연구가 현장교육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수교육학이 교육실천의 장면에 더욱 친숙해지려면 그 나름의 고유한 착상과 개념 및 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일컬어 왔던 방법들이 포착하지 못하였던 교육적 의미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소위 이론이라고 하는 연구지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실제적 지식간의 상보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이후 특수교육은 매체들(Shapiro et al., 1993)로부터, 장애인 옹호자들(Fuchs & Fuchs, 1994)로부터, 심지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가족과 당사자들(Duchnowski, Berg, & Kutash, 1995)로부터 특수교육 방법 및 연구에 대한 심

각한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큰 틀에서 특수교육을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비판이 다소간의 사실성을 결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Fuchs & Fuchs, 1995),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근거가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교육재활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 OSERS)이 의회에 제출한 여러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졸업 후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생활에서조차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dgar, 1987; Hasazi, Gordon, & Roe, 1985).

이는 특수교육 연구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거의 미시적 수준, 즉 특수학급에서의 아동과 교사 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왔었고, 연구 대상은 일반적으로 '학습장애', '행동장애' 혹은 '정신지체'와 같이 단일한 실체로 개념화하여 단순화하여 왔었다. 평가와 중재교육은 거의 교실에 한정하였고, 극히 제한된 시간에 교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었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몇몇 복합적 양상들에서 결함을 보이며, 그 결함만이 아닌 다른 강점들도 지니고 있는 복잡한 혼합체이며, 가족과 또래들로 구성된 사회체제의 한 구성원이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서 전폭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만성적이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기에 특수교육의 체제를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만족스러울만한 시사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의 특수교육 연구를 보다 넓은 의미인 체제적인 관점에서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리·실증적으로 제시해봄으로써 연구의 방향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켜 보자는 방향성 탐색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 구상(initiative)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여러 가지 서비스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중시되어야 함은 물론 장애학생 당사자들과 그들 가족 모두의 생태학적 입장에 대한 포괄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단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여러 출처들과 여러 연구방법 및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구상에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에 새로운 정보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들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 학술연구논문집에 포함된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끝맺음을 하면서 '○○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연구의 주제가 보다 체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Fuchs와 Fuchs(1994)는 특수교육의 통합운동을 둘러싼 사실과 정서에 대하여 탁월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들은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일반교육주도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그리고 통합운동(inclusion movement)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수교육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점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과의 관계를 재 정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양편의 극단주의자들(extremists)이 아닌 독창적인 실용주의자들(pragmatists)의 말을 들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느끼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반교육을 바라보는, 특수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전통과 가치, 그리고 법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아동들의 학습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적 선택권을 참음과 동시에 주류화 교육 또한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러한 때이다. (p. 305)

Fuchs와 Fuchs(1995, p. 305)가 제시한 메시지는 장애학생을 어디에서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모든 특수교육 연구공동체에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연구가 독창적 실용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가 체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특수교육 연구와 특수교육 실천의 현 상황

특수교육 연구와 교육의 실제 간의 관계성에 대한 검토는 체제 지향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준거로서 작용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찰 및 요약된 결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수교육 분야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 어떠한 유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Fuchs와 Fuchs(1994)의 주장은 사실상 다른 모든 연구자들도 한결같이 주장하였던 것이다(예, Kauffman, 1993 참조). 따라서 개혁의 속성과 개혁의 정도와 관련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분명하다고 본다. 둘째,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결과와 그 실제 사이의 관련성이 매우 허약하였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Malouf & Schiller, 1995). 교육정책을 현장교육에 반영하는 교육실천가들과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왔던 중요한 현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수없이 진행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힘은 극히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Eisner, 1985; Huberman, 1990; Shavelson, 1988). 따라서 교육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연구물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uchs와

Fuchs(1995)는 읽기 이해와 작문에서부터 철자 및 글씨 쓰기 등에 이르기까지 국어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매우 잘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십여 편의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그 논문들의 연구결과는 한결같이 장애학생들의 교과학습에서의 향상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경험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특수교육현장에서는 지도상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가?, 왜 연구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즉, 현재 주장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략들 모두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1983)라는 연구와 또 다른 관련 연구 및 보고서들에 의하여 촉발된 교육개혁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 어린이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때, 그 위치가 극히 미약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개선해보고자 제안된 교육개혁 전략은 결국 미국의 학교를 재구조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학교 재구조화 전략은 학교관리, 표준성적, 교육과정, 그리고 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과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전체적인 교육개혁 전략에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National Council on Disabilities, 1989).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욕구는 특수교육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OSERS에서 제출한 연차 보고서는 비 장애학생들에 비해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빈약한 교육성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환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단연구: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Wagner, 1993)의 결과 또한 특수교육을 받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졸업 후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U. S. News and World Report'의 1993년 12월 호 커버스토리 또한 특수교육의 명백한 비 효과성을 기사화한 경우가 있다(Shapiro et al., 1993). 이들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 분야에 문제점이 많음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특수교육 관련 분야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현장과는 빈약한 관계와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많은 연구문헌들이 발표되어 왔었다(예를 들어, Huberman, 1990 참조).

Malouf와 Schiller(1995)는 연구와 실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연구지식과 실제지식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반성에 대한 주장은 학계에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예를 들어, Goldberg & Gallimore, 1991 참조). 즉, 연구지식은 점진적 발전(linear)이라고 볼 수 있고, 경험적 확인의 결과이며, 그것은 학급에서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적용해야하는 교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인데 반해, 실제지식은 가르침이라는 행동에서 생겨난 것이고, 형식적인 연구나 이론과는 별개로 기능성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실제의 지혜(wisdom of practice)’,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기능지식(craft knowledge)’, 그리고 ‘실제 지식(practice knowledge)’과 같은 표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Malouf & Schiller, 1995, p. 415). Malouf와 Schiller는 소위 특정 개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지식을 복잡다단한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들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지식이 특정 환경에만 적용될 때, 종종 역동적인 환경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실천가들은 그 지식이 비현실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얻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게 된다.

III. 체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 점증적 발전을 위한 대안

특수교육 분야에 축적된 지식기반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더 격정스러운 것은 실제지식과 같은 구인 자체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구인에 대한 어떠한 형식적 연구검토 없이도 그 타당도를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연구란 단지 피험자들을 무선 표집·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한 실험설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들의 가치를 평가하기위한 양적이면서 질적인 엄격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한 체계적인 조사(Miles & Huberman, 1994)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특정 맥락의 중요성 및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때에도 엄격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수교육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명백한 역설과 모순된 관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의 많은 연구들이 미시적 측면방법을 활용한 것들이기에 그 결과가 교육실천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별다른 활용가치가 없었다. 오늘날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존재들이다.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학업결손이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회적응력에

서의 제한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요구도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IEPs)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복잡한 욕구 모두를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가족들(부모들, 친척들, 혈연관계가 아닌 양육자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단체도 그들 단독으로 모든 중재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학문적인 연구와 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수교육 연구와 교육실천이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각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체제적 접근 내부로 삽입된 중재가 필요하다. 결국 특수교육 연구가 미래의 교육실천에 더욱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수교육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체제적 관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모두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실행될 수 있다.

1. 서비스 개혁: 체제의 창출

책무성, 서비스 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등과 같은 개념들이 서비스 전달 활동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때, 연구 및 평가를 위한 노력들은 매우 독특하고도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전의 연구 및 평가활동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서비스 전달체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합목적으로 조정하여 나가는 것이 '체제적' 관점에서의 서비스 개혁이다. 즉,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적용되어져 왔었던 단편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서비스 체제에서,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기능하고 있는 체제 내에서 서비스 전달을 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개혁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서비스 분야 연구자들이나 평가자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들 분야의 사람들은 서비스 전달체제의 개혁을,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개관한 목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로 규명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들과 가족들의 대다수는 여러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받아야만 충족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예컨대, Virginia 주에서는 14,000 가족들이 손꼽히는 아동 서비스 기관들 중 적어도 한 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 교육, 정신건강, 혹은 미성년의 법적보호(juvenile justice)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관들로부터 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족들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했을 때, 한 가지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가족들의 수는 4,993 가족으로 줄어들었다(Boyd, 1994). 이에 더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 서비스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 중 일부는 과거에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수 년 동안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예컨대, The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는 서비스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특성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Shaw, 1995).

첫째, 서비스 개혁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서비스들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 재구조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아동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개혁의 대상이자 곧 목적이란 의미이다. 서비스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별 서비스 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개혁을 위한 노력이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이들 연구 프로그램을 새롭게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었다. 단순히 각각의 서비스들을 조정하려고 하였던 노력은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관별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장애학생 가족들의 복잡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 합당한 진화된 연구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셋째, 서비스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공공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책무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이해관련자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즉, 장애학생들의 가족들은 정부의 정책입안자 및 기관의 대표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바람직한 정책의 입안은 물론 성과 있는 서비스의 설계와 서비스 실행 모두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Duchnowski, Dunlap, Berg, & Adeigbola, 1995). 지금까지 장애학생의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의 장애 원인을 밝히려는 데 자신들의 역량 대부분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고, 특수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는 과정에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적어도 후원자 또는 동반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서비스 지원 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에 따라 기관별·전공영역별 관리실체

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별적 지원체제에서 종합적 지원체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조직단위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관리 조직의 실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다섯째, 서비스의 적격성(eligibility)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가족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통한 성취 목표나 성과가 크게 확대됨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여섯째, 서비스 개선은 시간이나 경험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일곱째, 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은 곧 정부단위의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자원조달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서비스 기간의 연장 등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준다(Saxe & Cross, 1992).

2. 체제개혁 노력의 어려움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협력적 교육과 협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이기에,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Knapp(1995)은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체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몇몇 쟁점들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학문영역과 관점들을 연구 설계 및 해석의 틀 속에 어떻게 통합하여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다. 전술한대로 다양한 학문영역들과 관점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합하는 일기에, 연구자가 주관을 갖고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 커다란 혼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는 개별성이 있고, 역동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체제개혁을 통하여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다. '소비자가 지원 가능성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지원들'(Knapp, 1995, p. 7) 안에 수반되어 있는 이러한, '고정된 처치(fixed treatment)'(실험설계의 전통)를 '가능성들을 적어 놓은 일람표'로 대체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개혁을 연구하는데 있어 독립변수(혹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효과(종속변인)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력일 때, 연구자들 및 평가자들은 종속변인(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명

히,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제의 궁극적인 성과들이나 효과들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호 의존적인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전달체제 내에 내재된 여러 가지 목적들과 성과들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을 특징짓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연구의 결과들을 연구의 영향들로 귀결짓는 것이 이런 유형의 연구 노력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 또한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력 내에서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어려움은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종종 민감하고, 때로는 미묘하기까지 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종종 참여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의 평가자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많은 조사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문제 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 전달의 민감한 속성을 감안해볼 때,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을 분리해내는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IV. 특수교육을 위한 점증적 대안의 종합

앞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장애학생들에게 최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방법 개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연구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가 서비스 제공의 실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효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극대화되리라 생각된다.

1. 연구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실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들이 합류한 다학문적 팀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팀은 일반 및 특수교육에 전문지식, 정신건강과 일반 건강관리와 같은 적절한 관련 서비스, 그리고 질적이며 양적인 방법 등에 정통한 전문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들과 교사들은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보도 투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수교육 연구에서는 보통 약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연구

의 확실성과 실용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팀의 환경에서는 진정한 참여적 프로젝트들이 개발될 수 있으며, 양적·질적 연구의 관점은 물론 부모 및 교사의 관점 모두가 최종적인 연구 계획안에 반영될 것이고, 이러한 점의 고려는 연구의 타당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2. 포괄적 초점

특수교육연구가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체제적 접근방식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포괄적이다. 중재와 관련된 쟁점들은 물론 사정에 관련된 쟁점들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정은 해당 아동이 기능하는 다양한 환경(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중재 성과는 개인, 가족, 그리고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분명히, 그러한 연구는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성과 상호 역동성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년 정도의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된다(Malouf & Schiller, 1995). 아울러 그와 같은 노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세분화되어야 한다.

3. 조직적 능력

대부분의 특수교육 연구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연 대학들이 이러한 특수교육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폐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소수의 정선된 연구요원들을 양성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최상의 연구를 위해서는 개방된 체제에서, 기관 간 상호 연계된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임상적 성격의 영역으로서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일차적 초점을 두어야 하되, 그 상호작용의 망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교육 연구는 미시적인 것으로서, 다각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한 거시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연구는 더 포괄적인 체제적 연구로 확대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향상된 성과와 관련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실제적인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을 양성·훈련시켜야 한다. 박사과정 이상의 수준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은 연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개별 대학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대학간 연대를 통한 훈련과 연구가 가능하여야 한다(Paul &

Epanchin, 1996).

4. 이웃에 대한 고려

특수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보는 연구는 해당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웃이나, 나아가 지역사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집 근처의 학교들, 시골의 분교들, 그리고 각종 대안학교들 모두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실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들과 문화적 쟁점 또한 연구에 있어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요소들을 체제 지향적 프로젝트 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점증적 모델을 통하여 일반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장애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중재방법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의 가치관, 지방의 특성, 자원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존재 혹은 부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상황도 연구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값진 변인이다. 물론 그러한 상황요인들을 모두 도입하는 것은 통제방법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Fuchs와 Fuchs(1995, p. 305)가 권고한 독창적인 실용주의 연구를 위해서는 얼마간은 어려움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5. 가족 및 교사의 참여

체제 지향적 연구에서 교사들과 가족구성원들을 연구의 한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일에 대한 몇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져 왔었다. 이는 그와 같은 연구가 서비스 전달체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포괄성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에 보다 높은 영향을 주기위해 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며, 또 연구가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서도 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Malouf와 Schiller(1995)는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사들에게 반복적인 참여를 권함으로써 혁신적 실재를 상실케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곧 보통 지원 및 필요한 자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연구가 종료되자마자 그 중재방법이 폐기되는 불행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편, 교사들과 행정가들이 연구팀의 일원일 때, 일반화 가능성, 보급, 그리고 실행을 위한 훈련 등의 쟁점은 연구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

일 교사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학교 위원회가 자신들의 학교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온 중재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들을 찾기 이전부터 교사들이 효과적인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 가족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가족들의 역할은 변해가고 있다(Duchnowski et al., 1994).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친근한 실험계획안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연구문제들을 구성하는데 이르기까지, 연구 프로젝트의 몇 가지 측면들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반드시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발해야 하고, 그들의 참여에 대해 협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연구자들과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가족구성원들은 또한 연구중심의 중재를 채택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강력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V. 중도 장애의 연구기반 확립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

지난 10여 년간 중증 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책입안자들, 가족구성원들, 교육실천가들, 연구자들, 그리고 다른 후원자들의 연합은 이러한 움직임을 후원해 왔다. 미국 연방정부의 구상인 'The Child and Adolescent Service System Program(CASSP)'가 이 활동의 핵심이었고(Day & Roberts, 1991), 항상 견고한 경험적 기반에 체제개발의 근거를 두는데 강력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Stroul & Friedman, 1986). 장애의 개별적인 범주들을 넘어서 특수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권장하고 있는 체제 지향적 연구의 몇 가지 예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헌들이 이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나온 몇몇 초기 결과들이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의 특별 판으로 출간되었다(Kutash, Duchnowski, & Sondheimer, 1994).

이러한 연구들의 특성은 그 연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교육, 아동복지, 그리고 정신건강 등과 같은 몇몇 기관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에 가족들의 문제를 포함시킬 필요성(Evans et al., 1994; Koroloff et al, 1994; Scherer, Brondino, Henggler, Melton, & Hanley, 1994)을, 학교들과 사회복지 기관들 사이의 연계(Catron & Weiss, 1994)를, 그리고 복잡하고 다 체제인 서비스 전달을 연구하기 위해 엄격한 설계를 채택할 필요성(예를 들어, Clark et al., 1994 참조)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연구재단들이 기금을 지원한 결과, 두 가지 주요 구상들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게 되었고, 이러한 구상들을 평가하는 요인들에서 체제 지향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것이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Children's Demonstration'이

다. 이는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로 구성된 포괄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여러 장소에서 연구한 것이다(Beachler, 1990). 평가에는 체제개선과 연계된 지표들에 대한 사정은 물론 아동들이 보인 성과에 대한 양적 측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사전·사후검증 절차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 자료들도 사용되었다. 그보다 더 최근에 'Annie E. Casey Foundation'은 이웃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Children's Mental Health Initiative'에 연구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Kutash et al., 1997). 비록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은 평가 중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 및 다 학문적 관점이라는 특성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Friedman & Hernandez, 1993).

VI. 결 론

이 연구는 체제적 접근방식이 유망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체제적 접근은 종래의 연구방법보다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연구는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이제는 연구방법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고, 연구 활동을 다각화해야 하여야 하며, 또 체제 지향적 연구 및 체제 지향적 평가에 대한 구상 방향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연구보다는 체제 지향적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연구 토대 자체가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소위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또는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가 4~5종으로서, 여기에 연간 250여 편의 연구물이 게재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미시적 개별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연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영역이 팀을 이루어 접근하는 체제 지향적 연구에 대한 지속적 개념화와 엄격한 설명과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학회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협력자들과 연구 동반자들 간의 망(networking)은 형성하고 확장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전문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의 미래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암초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성을 추구할 때에야 비로소 견고한 연구 및 평가 자료가 유입될 것이며, 이들 자료들의 유입을 통해 그 어떤 새로운 해결방법의 안내와 연구방법의 안정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 분야는 이러한 체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독창적 실용주의 노선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실제와 이론이 역동적으로 갈등과 조합의 과정을 반복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실재가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이론이 성립될 수 있듯이, 또한 이론이 존재할 때 그 실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향후 특수교육연구는 특수교육의 실재를 보다 분명하고 의미 있게 드러내는 특수교육 이론을 창출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의 제몫 찾기이다. 물론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특수교육연구의 전환을 꾀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체제적 접근을 통한 특수교육연구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정착시켜 줄 것임은 물론 우리 특수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Beacher, M. (1990). The mental health services program for youth. *Journal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17, 115-121.
- Boyd, L. A. (1994). *Integrating system of care for children and families: An overview of values,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model, with examples and recommendations*. Tampa, FL: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Carton, T., & Weiss, B. (1994). The Vanderbilt school-based counseling program: An interagency, primary care model of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247-253.
- Clark, H. B., Prange, M. E., Lee, B., Boyd, L. A., McDonald, B. A., & Steward, E. S. (1994). Improving adjustment outcomes for foster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arly findings from a controlled study on individualized servi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207-218.
- Day, C., & Roberts, M. (1991). Activities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ervice system program for improv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340-350.
- Duchnowski, A. J., Berg, K., & Kutash, K. (1995). Parent participation in and perception of placement decisions. In J. M. Kauffman, J. W. Lloyd, D. P. Hallahan, & T. A. Astuto, *Issues in educational placement: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pp. 183-196). Hillsdale, NJ: Erlbaum.
- Duchnowski, A. J., Dunlap, G., Berg, K., & Adeigbola, M. (1995). Rethinking the role of families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Policy and clinical issues. In J. Paul, D. Evans, & H. Rosselli (Eds.) *Restructuring special education* (pp. 105-118).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Edger, E. (1987). Secondary programs in special education: Are many of them justifiable? *Exceptional Children*, 53(6), 555-561.
- Eisner, E. W. (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A Personal View*. London: The Falmer Press.
- Evans, M. E., Armstrong, M. I., Dollard, N., Kuppinger, A. D., Huz, S., & Wood, V. M. (1994). Developing and evaluation of treatment foster care and family-centered

- intensive case management in New York.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228-239.
- Friedman, R. M., & Hernandez, M. (1993). *Special challenges in evaluating multi-site system reform efforts: A focus on mental health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fifteenth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Washington, DC.
- Fuchs, D., & Fuchs, L. S. (1995). Special education can work. In J. M. Kauffman, J. W. Lloyd, D. P. Hallahan, & T. A. Astuto, *Issues in educational placement: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pp. 363-378). Hillsdale, NJ: Erlbaum.
- Fuchs, D., & Fuchs, L. S. (1994). Inclusive school movement and the radic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reform. *Exceptional Children*, 60(4), 293-309.
- Goldenberg, C., & Gallimore, R. (1991). Local knowledge, research knowledge, and educational change: A case study of early Spanish reading improvement. *Educational Researcher*, 20(8), 2-14.
- Hasazi, S. B., Gordon, L. R., & Roe, C. A. (198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status of handicapped youth exiting from high school from 1979 to 1983. *Exceptional Children*, 51, 455-469.
- Huberman, M. (1990). Linkage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 qualitative stud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7(2), 363-391.
- Kauffman, J. M. (1993). How we might achieve the radical reform of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60(1), 6-16.
- Knapp, M. S. (1995). How shall we study comprehensive, collaborative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Educational Researcher*, 24(4), 5-16.
- Koroloff, N. M., Elliott, D. J., Koren, P. E., & Freisen, B. J. (1994). Connecting low income families to mental health services: The role of the family associat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240-246.
- Kutash, K., Duchnowski, A. J., & Sondheimer, D. L. (1994). Building the research base for children's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194-197.
- Kutash, K., Duchnowski, A. J., Meyers, J., & King, J. (1997). Community and neighborhood based services for youth. In S. W. Henggeler & A. B. Santos(Eds.), *Innovative approaches for difficult-to-treat popul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Malouf, D. B., & Schiller, E. P. (1995). Practice and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61(5), 414-424.
- Miles, M. B., & Huberman,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ies. (1989).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ere do we stand?* Washington, DC: Autuor.
- Paul, J., & Epanchin, B. (1996). The transform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Work in progres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7(5), 310-323.
- Saxe, L., & Cross, T. (1992). Financing mental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 gestaltist view of fragmented research and servi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Workshop: The Financing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49-153). Bethesda, MD: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 Scherer, D. G., Brondino, M. J., Henggeler, S. W., Melton, G. B., & Hanley, J. H. (1994). Multisystemic family preservation therapy: Preliminary findings from a study of rural and minority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198-206.
- Shapiro, J. P., Loeb, P., Bowermaster, D., Wright, A., Headden, S., & Toch, T. (1993). Separate and unequal: How special education programs are cheating our children and costing taxpayers billions each year. *U. S. News & world Report*, 115(23), 46-60.
- Shavelson, R. J. (1988). Contributions of educational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Constructing, challenging cognition. *Educational Researcher*, 17(7), 4-11, 22.
- Shaw, K. M. (1995). Challenges in evaluating systems reform.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Evaluation Exchange: Emerging Strategies in Evaluating Child and Family Services*, 1(1), 2-3.
- Stroul, B. A., & Friedman, R. M. (1986). *A system of care for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nd yout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 Wagner, M. (1993). *Trends in the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Menlo Park, CA: Stanford Research Institute.

* 논문접수 2004년 8월 5일 / 1차 심사 2004년 8월 23일 / 2차 심사 2004년 9월 2일

*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신지체인의 대인문제해결 특성'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함께 지내는 기술', '정신지체개념화' 등의 저(역)서가 있다.

* e-mail: shinkiha@dankook.ac.kr

Abstract

Relation of Future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and Educational Practice - A Systems Perspective -

Shin, Hyun-Ki*

Systems perspective proposes that special education research has to be shifted from individual way to systemic way. And it is apparent that systems perspective, though basic suggestion, is more effective than existing research methodology. In the meantime, special education research in Korea has inclined too much to individuality, so that we can hardly see any of tendenc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us to be diversifying research as well as to be variously analysing the existing methodologies. To serve this purpose, we have to set the direction for realizing both system-oriented research and system-oriented evaluation, and to do more and more support. Although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pecial education itself is weak, system-oriented research is to be performed in which professional areas and professionals from diverse fields collaborate as a team. Furthermore, we have to prepare systematic, scientific, and effective base for research by conceptualization of system-oriented research and more obvious explanation process about it.

Key words: Systems perspective, Research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